

# 신문보도를 통해 본 우리 도서관의 과제

## Library Issues Reported on Press Release

김 용 근(Yong-Gun Kim)\*

### < 목 차 >

- |  |          |
|--|----------|
| I. 서 론                                   | 1. 공공도서관 |
| II. 신문보도에서의 '도서관 관련 기사'를<br>논의하고 있는 연구문헌 | 2. 대학도서관 |
| III. 도서관 관련 신문 특집기사의 분석 및<br>논의          | 3. 학교도서관 |
|  | 4. 독서운동  |
|  | IV. 결 론  |

### 초 록

이 연구는 신문보도에 나타난 도서관에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신문은 도서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도서관 행사나 새로운 도서관이 설립될 때 단순히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는 기사보다는 도서관의 본질에 대한 심층보도를 하는 특집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독서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 결과는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므로 봉사내용을 마련할 때나 도서관 홍보에서도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언론보도, 신문보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독서운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of library issues on press release. Special editions issued in the feature articles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improvement of library services and publicity of library activities.

Key Words: Press Release, Public Library, Research Library, School Library, Reading Movement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ygkim@cu.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 I. 서론

최근 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를 이슈로 가장 많이 언론보도에 다루어진 기사는 작년에 있었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알리는 소식이었다. 국내외의 주요 도서관계 인사들을 인터뷰한 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가 오랜 시간 고대하던 '도서관법'의 전면 개정이나 '독서문화진흥법'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1)</sup> 이런 현상이 바로 언론보도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심층 취재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보다는 사건 중심의 신속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도서관 분야를 특집보도 형식으로 또는 사건중심 형식으로 집중적인 보도를 한 사례가 있다. 전국사서협회가 결성되던 1990년 4~6월 석 달 동안 국내 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한 도서관 관계기사가 총 43건이나 되는데 그 중 순수 전국사서협회에 관한 기사가 서울 9건, 지방 11건, 잡지 3건으로 전체 기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sup>2)</sup>는 보고이다.

언론에서는 도서관 문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사회 현상과 같이 도서관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속보성 보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가령 새로운 도서관의 신축을 알리거나 '도서관주간' 또는 '독서의 달'에 여러 도서관들이 개최하는 행사성 이벤트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그러한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도서관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취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특집기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우선 여러 날짜에 걸쳐 도서관의 주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독자들이 도서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며 또한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인사에게는 도서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인 시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불편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마다 업무 내용을 잘 안내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평소에 도서관에 무관심하던 독자들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언론보도에 다루어지는 도서관 이슈를 통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수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는 언론보도에서 다루어지는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서관 문제가 언론보도에서 다루어지는 성격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는 독자인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보도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도

1)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카인즈시스템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면 11건이 검색된다. 그러나 '도서관법'이나 '독서문화진흥법'으로 검색하면 0건이 검색된다.

2) 최정태, "도서관단체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제31권, 제5호(1990. 9. 10), p.18.

서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을 단순한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가끔 전문가의 조언을 보도기사에 포함시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새로운 국립도서관의 신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붙이는 기사 등이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집기사인 경우에는 언제나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수록하여 보도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부여하여 독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도서관을 다루면서 평가<sup>3)</sup>에 치우친 보도기사를 읽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방학 중에도 대학도서관은 이용자들로 만원이라는 보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열람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독서실로 이용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에 나타난 대출량을 근거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은 자료 대출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웹을 통한 이용현황은 통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새벽부터 공공도서관 입구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보고는 도서관의 숫자가 부족하니 더 많은 도서관을 신축하여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정부 관리들을 본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발언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도서관에 관련된 신문보도를 사건 중심의 기사가 아니라 특집 또는 기획 보도하고 있는 기사를 선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신문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는 목적은 우선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깊고 넓게 조사하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연히 여러 날짜에 걸쳐 연속적으로 보도되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들은 도서관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혀 줄 것이다. 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도서관 홍보를 계획할 때에 이 결과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0년 이후 신문보도에서 특집 기사로 다룬 경향신문의 '책 읽는 대한민국',<sup>4)</sup> 중앙일보의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sup>5)</sup> 서울신문의 '도서관을 살리자',<sup>6)</sup>

3) 각급 도서관의 평가에 대한 연구논문은 다수가 있으며, 주로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 도서관을 평가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정현태, "공공도서관 관리운영평가 6년의 성과와 과제-1998년~2003년 문화관광부 관리운영평가 결과분석," 한국비블리아, 제15권, 제1호(2004. 6), pp.69-90. 또한 최근에 '도서관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홍현진, "도서관 정보서비스 품질평가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6. 6), pp.93-120.

4) 2005년 3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1년간 매주 '책 읽는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하여 독서 캠페인을 특집기사를 연재하였다.

5) 2002년 2월 26일부터 5회에 걸쳐(1)유권자가 나선다(2)책 없는 공공도서관(3)지성의 황폐화-대학도서관(4)아이들이 불쌍하다(5)바뀌어야 할 도서관정책 등을 수록하고 있다.

6) 2006년 1월 18일부터 3회에 걸쳐(상)주민의 서재로(중)다기능 복합공간으로(하)시민참여가 관건 등을 보도하고

한국대학신문의 '도서관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sup>7)</sup>와 '지식정보사회의 동력-대학연구경쟁력'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어린이에게 책이 미래다'<sup>8)</sup> 등이다. 그 밖에 특집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의 사건 중심을 보도하고 있는 최근 신문기사도 사용하였다.

## II. 신문보도에서의 '도서관 관련 기사'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문헌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도서관 비전문가이면서도 언론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 기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민들은 단순하게 그들의 당면 목적에 도서관이 얼마나 부응하는지에 따라 그 유용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이 일정 부분은 열람실 중심의 독서실 기능을 하여야 된다는 주장, 때로는 정보자료의 보고이어야 되며 또는 문화의 산실로 충실하여야 된다는 주장 등이 그러한 견해들이다. 물론 도서관은 이러한 여러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모든 관중별 도서관들이 꼭 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용자 요구를 최대한 업무 내용에 반영시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문에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를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논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 논문에서는 언론이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의하고 있다.<sup>9)</sup> 예를 들면 '새벽을 여는 도서관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도서관 좌석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도서관이 새벽잠을 자지 않고 일찍 온 수험생들의 좌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적고 있다. 다른 한 신문에서는 '공휴일에 왜 도서관은 문을 열지 않느냐'고 하는 독자투고를 실고 있다. 공휴일에 도서관을 독서실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나타낸 독자 의견을 신문은 아무런 선별 조치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신문의 다른 날짜에는 '도서관정보-어디에 어떤 자료 있나 집에서 쉽게 검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서관은 정보의 보고이며 정보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적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도서관을 독서실로 또는 열람실로 표현한 부분은 어디에도 볼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신문이 잘못

---

'시리즈 3회 보도 이후'를 각계 인사와의 인터뷰 기사로 수록하고 있다.

7) 2006년 8월 21일부터 5회에 걸쳐 (1)도서관의 세계화, 지식의 세계화로 (2)이제는 마케팅 시대 (3)전문화 바람, 어디까지 왔나 (4)블루오션을 찾다, 다기능복합화 (5)첨단화, 유비쿼터스로 승부한다 등을 수록하고 있다.

8) 2006년 5월 14일부터 5회에 걸쳐 (1)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2)학교도서관에 영그는 꿈 (3)지역 공동체 바꾸는 작은도서관 (4)아가에게 책을 (5)독서교육 열 올리는 선진국 등을 수록하고 있다.

9) 허선, "우리나라 신문에 비친 도서관상-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계'에 수록된 기사를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제 38권, 제1호(1997. 1. 2), pp.3-13.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내린 결론으로, 신문은 도서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도서관계의 현실 문제를 분석 보도하여 여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한 논문은 1991년도 1년간 중앙 종합일간지 7종에 수록된 도서관 관련 기사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다.<sup>10)</sup> 신문에 수록된 도서관 관련기사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문화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적 발전의 지향점을 찾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한 평가의 근거로 분석한 신문기사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독서실 형태의 도서관을 지양하고 각종 행사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적 개념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부족과 경영방식의 미흡 등 도서관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투고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언론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중적 활동인 캠페인, 도서관 건립운동, 책읽기 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주목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sup>11)</sup> 언론은 도서관 본래의 활동보다는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활동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도서관 운영의 부실을 제도와 행정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펴지만 시민들과 이용자들은 그 책임이 도서관과 사서에게 묻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사서 재교육 과정에 홍보관련 프로그램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6년간 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서관'을 키워드로 검색한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있다.

### Ⅲ. 도서관 관련 신문 특집기사의 분석 및 논의

분석에 사용된 5종의 신문 특집 기사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독서운동 등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 1. 공공도서관

##### 가. 도서관정책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서관정책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총괄하고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

10) 송승섭, "한국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문화, 제35권, 제2호(1994. 3. 4), pp.15-46.

11) 이용훈, "언론보도를 통해 본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분석: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81-288. 2006.8.17-18. 연세대학교 위당관

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행정자치부는 예산지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과 운영의 주체가 일원화되었을 때 부족한 도서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내 여유 공간과 새마을문고 등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이 가능한 것이다.

한 신문은 도서관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다. 도서관 예산의 '혁명적 증대'와 자구책이 맞물려 전국을 지식정보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도서관문화를 선진화하는 밑그림이라고 말한다.<sup>12)</sup>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도서관정책 부분을 살펴본다.

도서관의 독서실화, 독서 전문 프로그램의 미비, 요원한 사서 전문화, 노후화된 인프라 등 누적돼 온 도서관 관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도서관행정 주체가 세 곳으로 분리된 탓이 크다. 정책개발과 도서관 관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니 중앙의 정책은 지역 도서관까지 미치지 못하고, 예산은 들쭉날쭉하며, 지역 내 도서관들조차 연계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sup>13)</sup>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유권자 운동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도서관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을 혁명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후보들이 도서관 관련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sup>14)</sup>

일관성 없는 도서관정책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사례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지원을 문화관광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정책순위의 뒷전으로 밀려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sup>15)</sup>

정책 주체의 변경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도 저조하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정부가 20%, 지방자치단체가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땅값이 싼 곳을 고르니 대중교통과 잘 연계되지 않는 곳이나 고지대에 도서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립도서관과 구청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간의 협력체계는 없다. 상당수의 구립도서관은 대출회원의 자격을 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립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원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표도서관을 세워 도서관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up>16)</sup>

12)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 <5>바뀌야 할 도서관정책," 중앙일보, 2002.3.15.

13) "주 5일 시대 탈진위기 공공도서관, 문제점과 대책," 부산일보, 2005.6.3.

14)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 <1>유권자가 나선다," 중앙일보, 2002.2.26.

15) "도서관을 살리자.(상)주민의 서재로," 서울신문, 2006.1.18

16) "도서관을 살리자. 시리즈 3회 보도이후," 서울신문, 2006.1.25.

현행 법에는 아파트 단지 100가구 이상에는 경로당을, 300가구 이상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마을문고 등에 대한 설치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신도시 계획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규모가 작은 마을문고를 세우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운동을 제시하기도 한다. '새 도서관'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헌 마을문고'도 활용해야 한다는 독자의 지적도 있다.

시민들이 제시하는 도서관정책은 수 없이 많다. 이들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또는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가깝게 접하고 느낀 소박한 생각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도서관의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의 해안가 동네 뉴브라이트에는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동네마다 있다. 거리를 건다 문득 읽고 싶은 책이 떠오르면 가까운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린다. 다 읽고 나서는 아무 도서관에나 반납하면 된다. 도서관이 시민들의 놀이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sup>17)</sup>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한국의 동 수준에 해당하는 마을마다 서울의 동사무소 건물만한 공공도서관이 있다. 어느 도서관이나 사람들이 찾기 편한 곳에 있고, 전문서적은 물론 아주 오래된 책부터 신간도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sup>18)</sup>

우리의 도서관정책은 늘 거창한 계획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느라고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정책의 단면을 들여다보자.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늘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게 우리의 도서관정책이다. 일단 건물부터 짓고 책은 출판사에서 얻고 사람은 이제부터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 도서관 활동을 해본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sup>19)</sup>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굴지의 초대형 도서관도, 세계 첨단 디지털도서관도 아니다. 옆집이나 시장 가는 기분으로 나서 맑은 날은 건널 곳도 날도 마을버스 타면 될 정도로 가깝고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도서관을 수 천개, 수 만개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sup>20)</sup>

최근에 우리나라도 대형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마을도서관의 발전방안, 지역문화센터로서 기능,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을 추구하고 있는 지적들을 볼 수 있다.

마을도서관은 독서토론, 동화구연, 독서지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적 삶을 누리는 곳이다. 24시간 무인 개방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은 자치능력을 키우는 교육비용으로 생각하여야 한다.<sup>21)</sup>

17) 강팍실, "내가 꿈꾸는 도서관," 중앙일보, 2007.1.12.

18) 고영희, "유아실 갖춘 남아공 도서관, 네 살난 딸도 책에 재미붙여," 중앙일보, 2005.11.25.

19) 한미화,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의 멋진 실험," 동아일보, 2006.10.31.

20) 전상인, "공공도서관 500개, 노래방 9만개," 중앙일보, 2006.1.11.

### 나. 예산

선진국에서의 도서관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부 예산과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편성된다. 우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기부하면서 도서관을 키워 온 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그러면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들의 예산 사정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비슷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의 예산 내용을 살펴본다.

용산도서관의 2001년 도서 구입비는 1억4천1백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8.5%에 불과하다.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의 비중이 훨씬 높다. 다른 공공도서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한 곳당 평균 예산은 4억3천7백만원으로 그 중 도서구입비는 12% 정도이다. 그 돈으로 3만5천종의 신간 중 16.4% 수준인 5천7백권 가량을 살 수 있다.<sup>21)</sup>

부산시의 2004년 기준으로 총 예산은 교육청 소속이 150억인데 비해 구 소속이 77억, 자료구입비는 각각 17억과 7억, 사서 수는 111명과 43명, 도서 대출 권수는 32억원과 12억원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구 소속 도서관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적용받아 예산이 전적으로 구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sup>22)</sup>

2006년 도서관 연감에 따르면 대구지역 13개 공공도서관이 구입한 책은 13만5천415권에 불과하다. 도서관 당 연간 1만권, 한 달 1천권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1년에 발간되는 신간 총수는 4만권을 넘는다. 신간이 부족한 첫 번째 이유는 도서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서, 연속간행물, 디지털자료 등의 자료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도서관별로 지원한다. 대구 지역 13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총액은 12억6천200만원이다.<sup>23)</sup>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직접 지원하던 도서 구입비를 행정자치부가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정책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도서 구입비가 전년에 비해 모두 삭감되고 있다는 호소가 많다. 문제는 이전처럼 '자료구입비'라고 항목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권교부세는 포괄적 지원 형식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자체가 표도 나지 않는 도서관 자료 구입에 돈을 쓰려할까 하는 우려는 현실로 바뀌었다.<sup>24)</sup>

도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기부금

21) 김재형, "마을도서관이 성공하려면," 한겨레신문, 2006.7.4., 다음의 글들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경상,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한겨레신문, 2006.6.21., "(사설)시민 자긍심에 상처 낸 공공도서관 실태," 부산일보, 2006.2.17., "(사설)우리 마을 살리는 희망의 작은 도서관," 한겨레신문, 2006.9.27.

22)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 <2>책 없는 공공도서관," 중앙일보, 2002.3.4.

23) "주 5일 시대 탈진 위기 공공도서관, 문제점과 대책," 부산일보, 2005.6.3.

24) "대구 공공도서관서 신간서적 찾기 별따기," 영남일보, 2007.4.17.

25) "책 읽는 대한민국, 3-3. 도서관 관련 예산," 경향신문, 2005.5.19., 이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과 전국 지자체의 도서관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도서관 협력망 활성화 워크숍'을 위한 자리에서 분권교부세에 대한 논의를 한 내용을 기사로 하고 있다.



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립 이진아도서관은 '아름다운 기부'로 태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진아 도서관이 기부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도 나서 책 100여권을 도서관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는 도서관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도서관의 사정을 보자.

뉴욕 공공도서관의 연구도서관 4곳이 받은 개인, 기업의 기부금은 미국연방정부와 뉴욕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비슷하다. 특히 1996년 문을 연 과학산업도서관의 개관비용 가운데 절반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로 이루어졌을 정도이다.<sup>26)</sup>

기부가 없는 우리에게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주장을 들어본다. 올해는 독서 문화진흥법이 발효되는 독서 중흥의 원년이다. 하지만 독서의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도서관에 충분한 장서가 없어서야 어찌 독서의 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신간 및 장서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지자체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절실하다.<sup>27)</sup>

#### 다. 장서

공공도서관은 돈 없는 시민에게도 정보, 지식에의 평등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시설이다. 그런데 책은 반드시 사서 봐야 하고 돈 없으면 책 외의 지식 콘텐츠에 접할 길이 막막한 것이 우리 사회다. 국가가 해 줄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공공도서관을 통해 공급해 주는 일이다.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람들이 기록해둔 것은 무엇이든 수집대상이 된다. 도서관 자료는 단지 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책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이 밖에도 시디, 음반,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디브이디, 오디오 북, 전자책, 사진, 영화필름, 무대의상, 포스터, 악보 등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sup>28)</sup>

한편 우리의 사정은 자료의 다양성보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일반적인 자료의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가장 많이 붐비는 곳 중 하나가 아동도서 코너다. 대개 아이들 손은 전진 배치돼 있는 베스트셀러 만화나 신간으로 향한다.<sup>29)</sup>

자료구입비의 부족으로 충분한 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사정에다 자료 구입과정에 나타나는 난맥상은 신속한 자료입수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은 입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도서 구입비를 500만원 이하로 쪼개, 비슷한 시기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도서관이 여럿이다.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 계약을 체결한 도서관도 있다. 도서

26) "도서관을 살리자.(하)시민 참여가 관건," 서울신문, 2006.1.23. 우리나라에서도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개념이 도서관에서 실행되고 있다., "도서관을 확 바꾼 '아줌마의 힘,'" 중앙일보, 2006.8.1.

27) "(시설)공공도서관에 신간이 없어서야," 영남일보, 2007.4.18.

28) "부러운 미국 도서관," 한겨레 교육섹션, 2007.3.26.

29) "어린이도서관 절대적으로 부족, 서점서 웅크리고 책 읽는 아이들," 중앙일보, 2002.3.10.

관의 도서 구입은 일반 물품과 다른 면도 있다. 신간은 즉각적으로 구입되어야 하고, 납품률은 높여야 한다. 형식과 절차에 얽매어 도서관에서 도서와 자료를 제때에 갖추지 못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공공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sup>30)</sup>

도서관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려는 방안으로 출판사에다 기증의뢰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다. 한 독자의 기고문은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한다. 국립도서관이면 정부기관인데, 사기업인 출판사한테 책과 인쇄물을 기증해달라고 한다. 영세한 공부방이나 지역 어린이도서관에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 그런데 이걸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달라는 것 아닌가.<sup>31)</sup>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에 대한 처리방안도 시민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서 수는 무의미하며 오래된 책, 쓰지 않는 책은 원칙에 따라 폐기하고 이용률 높은 신간 위주로 도서 구입비를 늘려야 한다.<sup>32)</sup>

도서관 장서의 노후화도 문제다. 도서관에 있는 책의 절반 이상인 58.9%가 1997년 이전에 출판된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찾기 힘들어 대학도서관이나 개인 도서관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경우도 있다.<sup>33)</sup>

#### 라. 인력

언론은 사서 인력에 대한 문제로 사서 수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를 들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인력 부족현상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각 공공도서관의 사서 직원 수는 현재 법정 기준의 22% 수준이다. 행정직, 임시직을 통틀어 다섯 명 미만이 꾸러나가는 곳도 전국의 도서관 중 31.5%에 이른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 품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sup>34)</sup>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문제 역시 심각하다. 우리나라 사서 수는 2002년 기준으로 1900여명 수준이다. 사서 한 명이 2만 4000여명의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기준에 3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sup>35)</sup>

사서의 부족은 결국 정보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서가 정보봉사라는 본

30) "(사설)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바로 돼야." 영남일보, 2006.11.25.

31) "국립어린이도서관 책 기증 요청." 한겨레신문, 2006.9.11.

32)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 <2> 책 없는 공공도서관." 중앙일보, 2002.3.4.

33)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한국 공공도서관 실태." 미디어다음, 2005.9.8.

34)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2>책 없는 공공도서관." 중앙일보, 2002.3.4.

35)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한국 공공도서관의 실태." 미디어다음, 2005.9.8.

래 업무보다 대출, 행정처리 등 잡무에 매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경남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사서가 참고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시간은 10.4%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출(15.9%), 행정사무(14.7%), 서가정리(14.2%), 반납독촉(11.3%), 환경미화(6.7%) 등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sup>36)</sup>

외국에서 초등학교생에게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이 미치고 있는 봉사 범위는 거의 학교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 하다. 공공도서관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시애틀 시내에 8곳이나 된다. 6~12살의 학생들에게 숙제 도움, 컴퓨터 교육,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개 도서관에는 '부모자원센터'가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sup>37)</sup>

## 2. 대학도서관

### 가. 장서

거의 모든 신문에서 최근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서개념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에서도 약간은 적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텍사스대학 학부도서관은 장서 9만권을 학내 다른 도서관으로 보내고, 신학기부터 '플론 아카데미센터'라는 이름으로 재 개관한다. '도서관은 정보를 찾는 곳'이며 과거에는 책이 유일하게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급되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텍사스대학 도서관 사서는 전하고 있다.<sup>38)</sup>

1990년대 아이오와대학과 남가주대학 등에서 태동된 '인포메이션 코민스'는 빠른 속도로 미국 대학도서관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미국 도서관의 적극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 학생들이 책이 아닌 온라인에서 지식을 얻게 되어 보지 않는 책 대신 컴퓨터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자 토론의 장으로 내어준 것이다.<sup>39)</sup>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아날로그에서 본 다. 그렇다고 디지털자료의 이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사는 이유는 '찾는 책이 없다', '시간이 나와도 볼 수가 없다'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의 도서 구매 방식이 최저가 낙찰 경쟁 입찰을 주로 시행하고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이 곤란해 꼭 필요한 시점에 자료를 받기 힘든 연구자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sup>40)</sup>

36) "도서관을 살리자.(중)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서울신문, 2006.1.20.

37) "부러운 미국 도서관," 한겨레 교육섹션, 2007.3.26.

38) "책 없는 도서관 시대의 도래," 중앙일보, 2005.8.26.

39) "미국 대학도서관에는 책이 없다," 오마이뉴스, 2005.6.24.

40) "최저가 낙찰방식, 무조건 싸게 구입 문제 있다," 한국대학신문, 2007.1.12.

어떤 대안은 없으면서 문제점만 지적하는, 연구자들의 장서에 관련된 불만의 토로는 끝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량의 평균은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28%, 저널 수 평균 역시 33%에 불과한 수준으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장서조차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sup>41)</sup>

최근 정부가 자료 확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내놓고 있는 유용한 정책 하나가 있다. 교육부는 경북대 도서관을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해 2007년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 대학도서관에 학술지 구입비(2억원)와 운영비로 매년 2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10년까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10곳이 전국의 대학도서관에 설치된다. 1개 센터 당 500여종씩, 10개 센터에 총 5000여종의 외국학술지를 추가로 확보해 2010년에는 국내 구독 외국학술지 수를 총 1만 5000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sup>42)</sup>

#### 나. 정보서비스

어느 사서는 대학도서관에서 해야 할 정보서비스를 자세하지만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책을 찾기 쉽게 배치하는 일, 도서관 안내판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일, 도서관 홈페이지의 메뉴구성을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만들고 운영하는 일, 새로운 신간자료 도착을 신속히 알리고 신청 자료의 도착까지의 경과를 통보하는 일, 도서관에서 현재 어떤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의 내용이나 자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 등이 모두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의 가치를 홍보하는 것이다.<sup>43)</sup>

이용자 요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용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교수의 연구지원을 위해 다른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요구조사를 통해 개인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 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주제사서의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지적이다.<sup>44)</sup>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제사서제도의 방식을 두 대학도서관의 실행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균관대 과학학술정보관에서는 주제사서별로 담당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수별 정보이용행태와 주요 이용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만나 이용자 요청 사항, 불평 사항 등을 청취하고, 연구실 단위로 소수 전공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주제별 장서 및 정보원 개발, 학술지 분석 및

41) “국내외 대학도서관 ‘하늘과 땅’ 차이,” 한국대학신문, 2006.12.8.

42) “2010년까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10곳 구축,” 한국대학신문, 2006.8.11.

43) “도서관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2)이제는 마케팅 시대,” 한국대학신문, 2006.8.28

44) “도서관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3)전문화 바람 어디까지 왔나,” 한국대학신문, 2006.9.4.

수요조사 등을 통해 주제 담당 사서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승실대 학술정보센터도 경상대 교수들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정보의 형태와 내용을 파악해 연구와 강의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를 위해 2명의 사서가 배치되었다. 저널 수요조사와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해 수요도가 높은 전자저널의 교체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교수들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sup>45)</sup>

소장자료에 크게 의존하던 때에는 다르게 인터넷 시대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정보원에 대한 검색업무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기능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서관과 사서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개인의 요구를 분석해 분야별 전문 사서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6)</sup>

대학도서관의 문제는 결코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학과 사회의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대학도서관 침체 원인으로 소장 도서와 전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시설의 낙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학 및 사회의 인식 부족, 낙후된 교육방법과 연구 환경에 따른 저조한 이용, 정보공유와 관련기관간 연계체제 미흡 등 인식과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가 부진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sup>47)</sup>

#### 다. 인력

대학도서관의 학내 위상 및 인식, 관장의 자격과 역할, 사서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교육, 연구지원의 전문성 정도 등이 선진 외국의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외국과 크게 다른 제도 중의 하나는 도서관장과 사서의 전문성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장직은 전공과 무관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연구중심대학 도서관장직은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 이상의 사서 전문가가 맡아 운영한다. 도서관장은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하며,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sup>48)</sup>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이지만, 외국에서 오래 연구생활을 한 연구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사서의 주제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서 구입, 정리, 대출 같은 일상적 업무를 하기에 힘들어한다. 사서를 배출하는 문헌정보학과를 선진국처럼 전문대학원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sup>49)</sup>

사서의 주제 전문성에 대한 책임은 대학과 현장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한 현장 전문가는 대학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주제사서가 가장 필요한

45) 위와 같은 신문.

46) "적극적 마케팅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국대학신문, 2006.8.28.

47)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 활성화 대책 의미와 배경 전망," 한국대학신문, 2002.10.19.

48) "국내의 대학도서관과 하늘과 땅 차이," 한국대학신문, 2006.12.8.

49)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3)지성의 황폐화-대학도서관," 중앙일보, 2002.3.7.

곳이면서 사서를 양성하는 대학의 기관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변화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sup>50)</sup>

다음은 학술정보기관에서 연구하는 한 전문가의 대학도서관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다. 논의의 핵심 부분을 옮겨본다. 우리나라 도서관문화는 일본에서 큰 영향을 받아왔다. 도서관의 기능, 위상 뿐 아니라 사서 양성제도까지 매우 닮아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대학도서관 관할 부처인 문부과학성에서 도서관의 위상 강화와 도서관장 전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도서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고등교육 전반의 질과 연구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대학의 학술정보지원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대학도서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본 장서량의 확충, 도서관의 위상 정립과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sup>51)</sup>

### 3. 학교도서관

#### 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교도서관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 양에 비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기술에 치중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최근에 한 신문이 학교도서관이 처한 현재 상황을 자세한 부분까지 이해하면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로부터의 조언도 아주 적절하게 받아서 기사작성에 참고하고 있다. 다음은 그 기사의 내용이다.<sup>52)</sup>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모두 3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콘텐츠 미비와 사서교사 부족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도서관 신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60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도서관 지원사업이 깊이 있는 현장조사와 사업 이후 활용 측면을 간과한 채 외형 위주로만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설은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 보면 도서관 이용 행태에 변화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원 학교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데다, 독후활동이나 도서관을 이용한 과제 해결 프로그램 등 도서관에서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정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사서교사 증원, 콘텐츠 확보, 프로그램 마련 등 내용적 측면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50) “도서관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3>전문화 바람 어디까지 왔다.” 한국대학신문, 2006.9.4.

51) “국내의 대학도서관과 하늘과 땅 차이.” 한국대학신문, 2006.12.8.

52) “결만 화려 속 빈 학교도서관.” 한겨레신문, 2007.3.6. 이 기사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자료가 ‘학교도서관정책포럼’의 <보도자료>에 전문이 올려져 있다.

리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서교사 한 명만 있으면 신간 구매, 이용하기 편한 서가 배열,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는 현직 사서교사의 지적이다.

앞으로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습관을 바꾼다든지, 학교수업과 연계해 운영한다든지 하는 내용적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다.

#### 나. 학교도서관의 활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 왜곡 운영되는 근본적 원인은 학교도서관이 피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입시로 인해 황폐해진 공교육을 살리는 데도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부 교사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교장선생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한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교사에게 업무 분장하는 권한과 학교운영비의 5%까지 도서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학교도서관 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두 신문기사를 통하여 현재 학교도서관에는 무엇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를 알아본다.

최근 우리 지역의 학부모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전담 사서 인력이라는 점이다. 학교의 도서관 담당 교사들과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에게 학교도서관이 개선해야 할 점을 물은 결과 전문 사서부족, 담임과의 병행업무,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미숙, 인력부족, 열람시간 제한, 전문성 결여, 수업방해, 도서관관리의 어려움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두가 전담사서 인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sup>53)</sup>

학교 내 도서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있고 없과의 차이는 크다. 전문적인 교육과 임용시험을 거쳐 발령된 사서교사가 아니라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게 될 때에는 도서관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도서관의 개방시간에서 차이가 난다. 사서교사는 종류별 도서구입 및 배치, 도서관 이용과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관련 교과수업이 있을 때 원활한 교수 학습지원, 독서지도, 전반적인 도서관 관리업무 등을 한다.<sup>54)</sup>

현재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은 제도보다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느끼며 실천력이 강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칼럼의 일부를 옮겨본다.

나는 전문성 여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학교도서관의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허우적거리면서 작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2002년 3월 경북은 22명의 신규 사서교사를 울릉도를 포함한 23개 지역 교육청마다 한 명씩 배치했다. 대구도 2003년 11명을 신규 임용함으로써, 교육부의 '좋은 학교도서관

53)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된다." 경남일보, 2006.4.5.

54)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턱없이 부족," 팔공신문, 2006.7.19.

관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이끌어내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sup>55)</sup>

“책 읽는 대한민국”을 특별기획한 경향신문은 학교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조금도 주저 없이 고양시의 화수고등학교 도서관을 들면서, 도서관 운영의 주역인 이혜화 교장 선생님의 ‘도서관 만들기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수고 도서관의 모범적 운영’까지 합하여 함께 정리한다.<sup>56)</sup>

화수고는 현재 학교 예산의 2%정도를 도서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 구입비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학생들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신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다. 1년에 5-6회씩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도서 신청을 받으며, 각 교과 부장교사로 구성된 자료 선정위원회가 구입할 도서와 시디, 디비디 등 자료를 선정한다. 도서는 보통 1회에 200-300권을 구매하는데 지난달 말에도 고전이나 학습자료, 실용서 등 신간 위주로 200여권을 주문한 상태다. 이렇게 확보한 도서 수는 모두 1만 7000권에 이르고 있다. 각종 시사 잡지나 과학, 예술잡지 등 매달 구독하는 잡지만도 30종에 달한다. 작은 대학의 도서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학교의 도서정보실은 학교에서 전망과 위치가 좋은 곳이다. 원래 교무실이 있던 자리였지만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1년 교사들을 과목별로 나눠 여러 방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매년 도서 대출 건수가 많은 학생에게 독서왕 시상, 독서를 주제로 한 사진콘테스트, 독후감 모 집 등을 진행한다. 매년 9월에 ‘20자 서평’ 행사를 한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를 들기로 한다. 한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도서관 운동은 평등교육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책을 발견하고 지적인 문화를 흡수하게 해야 해요. 자극이 있어야 꿈을 꾸고, 꿈을 꿀 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관악중학교의 백화현, 송경영 교사는 유명한 ‘학교도서관 전도사’ 콤비다. 이 둘은 부임하는 학교마다 도서관을 일으켜 세우고, 학교도서관 관련 모임을 다니며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57)</sup>

#### 4. 독서운동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책을 읽지 않는 나라 중에 아마도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 신문의 사설은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을 소개하면서 독서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평균 독서량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9월 국립중앙도

55) 김선평, “학교도서관 서설,” 매일신문, 2007.4.9.

56) “책 읽는 대한민국. 2-1 도서관이 살린 학교-고양 화수고,” 경향신문, 2005.3.25., “대학 버금가는 도서관-학생들로 가득,” 세계일보, 2007.4.22., 화수고 교장 선생님인 이혜화는 “꽃 책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의 저자이다.

57) “어린이에게 책은 미래다.(2) 학교도서관에 영그는 꿈,” 한겨레신문, 2006.5.14., 백화현, 송경영 교사는 “학교도서관에서 책 읽기”의 저자이다.



서관이 조사한 독서 실태에 따르면 국민의 24%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1인당 연평균 독서량은 2년전 11권에서 11.9권으로 조금 늘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급증했다.<sup>58)</sup>

경향신문은 2005년 한 해 동안 “책읽는 대한민국”이라는 연중 캠페인을 벌렸다. 여기에는 ‘도서관 중심 지역문화 육성’, ‘독서정책 점검’, ‘도서관 짓기’, ‘한도시 한 책읽기’, ‘북스타트운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가. 도서관을 통한 독서운동

도서관이 살아나자 처음으로 만화책과 판타지 소설을 빌려가던 학생들이 인문, 사회과학, 고전문학 등에도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사고력도 높아졌다. 국어담당 송영경 교사는 예전에는 토론시간에 10분정도 각자 의견을 말하고 나면 할 말이 없었지만 요즘은 2-3시간씩도 모자라 저녁까지 가는 끝장토론도 곧잘 벌어진다고 한다.<sup>59)</sup>

도서관을 통한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두 외국의 경우를 알아본다.

일본은 2005년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했다. 도서관을 늘려 모두가 문자, 활자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읽는 힘, 쓰는 힘 및 조사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또래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는 ‘이야기 시간’을 운영하며 혼자 책을 읽을 수 없는 아이에게 전화를 통해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sup>60)</sup>

#### 나. 학교에서의 독서운동

일본은 독서운동을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이 초당적 단체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에 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독서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냐는 반론도 있었다.<sup>61)</sup>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독서운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옮긴다. 아직도 도서관을 통한 독서운동은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초중고교에서 매일 아침 10분간 실시하는 독서운동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48.7%가 아침 독서운동이 지속되길 희망했고 이들 중 70%는 아침 독서시간이 연장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의 50%는 만

58) “(사설) 읽는 대한민국에 미래이다.” 동아일보, 2007.1.2.

59) “어린이에게 책은 미래다.(2) 학교도서관에 영그는 꿈,” 한겨레신문, 2006.5.14.

60) “어린이에게 책은 미래다.(5) 독서교육 열 올리는 선진국,” 한겨레신문, 2006.6.25.

61)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4>아이들이 불쌍하다.” 중앙일보, 2002.3.11.

하나 동화였고, 중고교생이 읽는 책의 60-70%는 일반 소설과 판타지 소설, 무협, 추리소설 등으로 편향성을 보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정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장서를 확보하고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sup>62)</sup>

대구의 아침 독서운동은 지난해 3월 교육청 주도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찾던 한원경 장학사는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자료를(아침 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 청어람) 발견하고 구입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sup>63)</sup>

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논술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도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단계별 독서매뉴얼 'e-독서친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고 독서능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sup>64)</sup>

독서운동의 다른 한 축이 되고 있는 북스타트운동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북스타트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도서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북키드 제작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자체나 기업들이 나눠 맡는다. 도서관, 보건소, 지자체 등은 북키드 보급과 후속 프로그램을 맡고,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들이 이를 돕는다.<sup>65)</sup>

## IV. 결 론

우리는 도서관의 전형을 미국 도서관에서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논문을 쓰거나 연설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의 수, 장서량, 봉사내용, 도서관장과 사서의 전문성 등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구성요소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는 우리나라 도서관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몇 배나 뒤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도서관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나 모두 비슷하게 표명하고 있다.

때로는 미국 도서관 뿐 만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정까지도 표로 만들어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이들 나라의 도서관처럼 발전하여야 된다고 강조하는

62) "대구 등교 후 10분 독서 효과 만점," 동아일보, 2007.1.24. 이 기사는 다음의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김종성,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이 학생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2007. 3), pp.173-194.

63) "10분 독서의 성지, 대구," 국민일보, 2006.6.27., 한상수, "아침독서 애들 삶을 바꿔주죠," 경향신문, 2005.7.14.

64) "도교육청 독서인증제도 인기몰이 행진," 영남일보, 2007.2.6. 독서인증제가 독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신문기사로는 "책 읽는 대한민국. 3-1. 독서교육 정책 논란," 경향신문, 2005.5.5., 학술 논문으로 독서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의 논문이 있다. 이연옥,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09-234.

65) "어린이에게 책은 미래다.(4)아가에게 책을 주자," 한겨레신문, 2006.5.17.

대목에서 하는 말이다. 이런 비교는 우리가 그들 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단순히 수치적인 비교만으로는 우리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비교대상으로 삼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도서관을 발전시켜 왔으며, 누가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는 어떠하며, 정부기관과 연구자와 현장 사서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미국은 공공도서관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기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근거로 도서관을 지원하며, 민간의 기부금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선진국의 도서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걸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도서관 문제를 본다고 도서관 전문가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행처럼 처리하던 일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어 공개하고 여론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나 일선 도서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책을 펴면서 하는 생각들을 언론은 직접 그들에게 접근하고, 입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런 '정보'를 취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거의 도서관 전문가들만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는 정도이다. 결국 사서들의 희망사항이 추가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집기사와 약간의 사건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기술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문제는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많지 않으니 자료구입비로 배당되는 예산이 많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사서인력의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 급하다. 이것은 인터넷시대에서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주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제사서제 운영을 학계와 현장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장에 대한 논의도 전문성이라는 개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재검토하여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콘텐츠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서교사의 확보가 학교도서관 발전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중요성은 도서관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화수고와 관악중의 경우에서 충분히 실증해 주고 있다.

넷째, 독서운동은 현재는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독서자료의 확보로 편중된 독서로부터 선택하여 독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의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서운동을 눈여겨 볼만하다.<sup>66)</sup>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미 '독서문화진흥법과 바람직한 독서운동'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66) “책 읽는 대구 만들기, 공공도서관도 나섰다”. 매일신문, 2007.5.17.